

광주·전남 대학생 중도 탈락 증가세

자퇴가 가장 많아... '대학 불만족' 이 주원인

학교 측 "맞춤형 취업 지원 등 대책 마련 절실"

학업을 중단하는 '중도 탈락' 대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191개에서 9만 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중도 탈락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91개 대학에서는 총 9만2,607명이 중도 탈락했다. 전체 재적 학생 202만9,903명과 비교하면 4.6%로 지난 2017년 4.1%보다 0.5% 포인트 높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대, 송원대, 세한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평균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은 7.4%로, 2016년(6.6%) 대비 0.8% 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지난해 12.8%의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을 기록한 송원대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세한대(9.2%), 남부대(8.2%), 동신대(8.0%), 광주대(7.4%), 호남대(6.6%),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6.0%)을 기록했다.

중도 탈락 사유로는 자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도 탈락 학생수 대비 자퇴 비율은 순천대 71.1%(600명 중 427명), 호남대 60.2%(626명 중 377명), 전남대 60.0%(742명 중 446

명), 송원대 55.9%(484명 중 271명), 광주여대 51.4%(21명 중 109명), 조선대 50.7%(1,407명 중 714명) 순으로 집계됐다.

중도 탈락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대학에 대한 '불만족'이다. 어렵사리 진학한 대학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적을 옮기는 것은 그만큼 대학에서

의 학업·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만큼 대학의 교육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도 있다.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들이는 유·무형의 비용을 생각해 보면 대학들도 중도 탈락은 분명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도 중도 탈락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 취업 지원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도 중도 탈락이 나오는 것은 진로·적성, 목표 대학·학과 수준 등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대학들도 중도 탈락하는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학생 상담 및 취업 지원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간판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진로와 전공선택 지도가 필요하고, 대학에서도 내부 혁신과 아울러 취업에 대한 고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학교폭력 예방활동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은 7일 오전 하백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북구청, 북부경찰서, 북구보건소가 참여한 가운데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뚝'

지난해 광주 취업률 24% 하락

광주·전남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학생들 감소가 취업률 하락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참여 기업은 2016년 1,067개에서 2017년 477개, 지난해 301개로 2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도 2,079명, 790명, 676명으로 감소했다.

전남도 참여기업은 도 2,367개, 1,114개, 619개로 줄었으며 4,529명, 3,357명, 1,421명으로 감소했다.

취업지원관 제도도 무용지물이다. 교육부가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취업지원관 1,000명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정작 채용된 취업지원관은 439명에 그쳤고 이 중 정규직은 165명에

불과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목표치가 25명과 73명에 이르지만, 실제 채용된 인원은 광주 10명, 전남 2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직업계고 취업률도 곤두박질쳤다.

광주의 경우 직업계고 취업률이 2017년 76.7%에서 2018년 52.5%로, 무려 24.2%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8.8%포인트 감소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현장실습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 보장, 노동인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직업계고 취업률이 18% 포인트 하락 한 것은 현장실습 참여 기업과 참여 학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특성화고와 종합고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대책 수립

조기개입·치유 시스템 구축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도박문제 예방을 대책을 수립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을 도박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2019 학생 도박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생 도박문제 조기개입 및 치유시스템을 구축, 도박문제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학업어려움, 심리적 불안, 자살문제 등의 해결에 복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온라인 교원직무 연수를 활성화함으로써 현장에서 도박학생에 대한 조기개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상별 예방교육 강화와 도박예방

선도학교 운영으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학부모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도박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올바른 인지 대처방법으로 학교와 가정에서도 예방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0년 3월 도박예방 선도학교를 선정해 도박예방 연구, 치유캠프 등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김성애 과장은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위험정보를 제공해 도박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낮추는 토래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며 "불법 도박을 철저히 단속해 위험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대상별 예방교육 강화와 도박예방 /조기철 기자

소방·구급대원 5년간 성희롱 44건·46명 피해

제도적 시스템 마련 시급

광주와 전남지역 소방·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성폭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소방·구급대원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폭행·추행 등)가 매년 평균 185건씩 발생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5년간 44건이 발생해 46명이 피해를 입었다.

광주의 경우 19건에 21명이, 전남에서

는 25건이 발생해 25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4년 2건에 1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2015년 4건에 6명, 2016년 2건에 3명, 2017년 5건에 5명, 2018년 5건에 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1건에 1명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의원은 "소방대원들의 성희롱과 성폭행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강화된 징계 방안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찬 기자

전남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추진 주민설명회

전남도교육청이 가정생활이 어려운 학생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주거환경과 교육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신설을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남학생 Wee센터 이설 주민설명회에 이어 최근 여학생 Wee센터 신설 예정지인 무안군 청계면 예술인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학생치유를 위한 회복과 교육, 적응, 연계, 홍보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학대나 방임, 조손 가정이 늘면서 학생들에게 가정과 같은 포근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과 지역 사회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점과 마을 농번기 봉사활동과 텃밭 가꾸기 등 자연친화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부각됐다.

송용석 교육국장은 "여학생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정형 Wee센터 신설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백주대낮부터 만취해 난동

○... 술에 만취하고 욕설을 내뿜은 것.

○...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씨에게 "왜 대낮부터 술에 취해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행동에 아르바이트생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며 "술에 취하면 집에 들어가 잘 것이지 왜 편의점을 들어 갔는지 모르겠다"고 질레질레. /이나라 기자

동부 센트레빌, 상가

사정상 급매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급매 - ~~9억~~ → 7억원
- 임대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350만원

덕남동, 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 덕남동 임야,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